

발간등록번호

2020-KIHF-143

2020년 제 3차 온라인 가족포럼

포스트코로나 가족가치관 및 가족문화 변동 예측과 전망

일 시 2020. 12. 2(수) 14:00
영상공개 2020. 12. 11(금)
장 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회의실

프로그램

▷ 개회

개회사 : 김혜영 이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발제

[발제 1]

한국인의 가족가치 인식을 통해 본 가족서비스 수요 예측
- 박경은 본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발제 2]

포스트코로나 가족문화 변화 가능성 : 명절보내기 실태를 중심으로
- 손서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 토론

좌 장 : 김영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토론 1]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명절 보내기와 가족문화의 변화 방향
- 조성은 실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

[토론 2]

코로나19 이후 명절의 변화와 가족사업의 변화
- 천현진 사무국장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 3]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다문화가정의 가족문화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명절 문화 전망
- 이레샤 대표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 질의 응답

▷ 폐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나 예방 백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내년 포럼에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안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새로운 희망을 잠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심리적 방역에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올 한해 사회 각 분야 전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포럼에서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삶의 양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2020년 추석 연휴도 '추석 특별 방역기간'이라는 국가적인 방역 조치 하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명절과 다른 양식의 명절 의례가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소회는 아마 성별, 세대, 계층별로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명절의 모습과 문화는 이러한 감염병 상황이 더해져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의례는 우리 태도나 가치, 라이프 스타일의 집적물입니다. 우리 태도나 환경이 바뀌면 의례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마도 명절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 가족에 대한 의미, 관계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태도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안전한 사회돌봄망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위기 상황일수록 생활에서 조차 방임, 학대, 소외 등의 문제가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9년부터 한국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별히 명절 등 전통적 가족문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명절에 대한 의미는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큰 방향으로는 이미 개인화된 삶의 방식에서 명절의 의미는 약화 될지라도, 사실은 관계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기제가 갖는 의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환경에서 새로운 젊은 세대는, 혹은 중장년 세대는 의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며, 가족에 대한 가치와 인식, 가족문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 보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서비스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가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가족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발제 1] 한국인의 가족가치 인식을 통해 본 가족서비스 수요 예측 - 박경은 본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01
[발제 2] 포스트코로나 가족문화 변화 가능성 : 명절보내기 실태를 중심으로 - 손서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27
[토론 1]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명절 보내기와 가족문화의 변화 방향 - 조성은 실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	47
[토론 2] 코로나19 이후 명절의 변화와 가족사업의 변화 - 천현진 사무국장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3
[토론 3]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다문화가정의 가족문화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명절 문화 전망 - 이레샤 대표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59

[발제 1]
한국인의
가족가치 인식을 통해 본
가족서비스 수요 예측

박경은 본부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혁신본부

한국인의 가족가치 인식을 통해 본 가족서비스 수요 예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 경 은



목차

- 1 추진배경
- 2 가족관련 인식 조사 결과
- 3 가족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본 가족서비스 수요

1. 추진배경

1. 추진배경

N포 세대의 핵심 : 연애, 출산, 자녀

- 2030 세대를 향해 씌우는 포기 프레임과 취업, 주거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불공정 이슈
- 결국 연애, 출산, 자녀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발달'에 붕괴 조짐

'탈연애'와 가족호칭

- 2030세대에서 기존의 관습적 연애방식을 거부하는 '탈연애' 움직임 포착
("한국 남자랑 연애 안 해", 중앙일보 '19.9.20)
- 2019년 가족호칭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34건

자발적 비혼출산?, 가족종료?

- 지속적인 신생아 유기사건(화장실, 당근마켓)
- 1인 가구에 대한 가족서비스 논의의 폭발

1. 추진배경

조사개요

- 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표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⑤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래 가족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사와 논의는 부족
- ⑤ 2030의 가족과 관련된 인식을 통해 향후 가족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해보고자 함

- 조사대상 : 전국 2030 남녀
- 조사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해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추출 : 17개 시도별 성별/연령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 유효표본 : 총 1,000명
- 조사기간 : 2019.12.9~12.12
- 조사문항 : 성별인식, 연애의향 및 인식, 결혼·출산·육아관련 인식, 배우자 호칭에 관한 인식, 가족관련 인식, 관련 정책요구



1. 추진배경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000	100.0%	
지역	서울	213	21.3%
	인천/경기	325	32.5%
	대전/세종/충청	104	10.4%
	광주/전라	88	8.8%
	대구/경북	88	8.8%
	부산/울산/경남	144	14.4%
	강원/제주	38	3.8%
성별	남자	519	51.9%
	여자	481	48.1%
연령별	20~24세	240	24.0%
	25~29세	252	25.24%
	30~34세	226	22.6%
	35~39세	282	28.2%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07	30.7%
	미혼	666	66.6%
	비혼	18	1.8%
	이혼	9	0.9%

	사례수	%	
전체	1,000	100.0%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07	30.7%
	미혼	666	66.6%
	비혼	18	1.8%
	이혼	9	0.9%
직업	상용근로자	539	53.9%
	임시근로자	22	2.2%
	일용직	12	1.2%
	시간제	60	6.0%
	자영업/창업	53	5.3%
	학생	170	17.0%
	주부	69	6.9%
학력	무직	75	7.5%
	고등학교	126	12.6%
	대학(4년제 미만)	206	20.6%
월소득	대학교	602	60.2%
	대학원	66	6.6%
	50만원 미만	175	17.5%
	50~100만원 미만	56	5.6%
	100~200만원 미만	175	17.5%
	200~300만원 미만	299	29.9%
300~400만원 미만	177	17.7%	
400~500만원 미만	62	6.2%	
500만원 이상	56	5.6%	



2. 가족관련 인식 조사 결과

- ① 성평등
- ② 가족관
- ③ 결혼관
- ④ 연애
- ⑤ 결혼
- ⑥ 자녀
- ⑦ 1인 가구 선택 의향
- ⑧ 호칭

2. 조사결과

① 성평등

성평등인식

성평등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6개 문항 제시

- V 남녀간 임금격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항에
→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8.3%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맞벌이부부의 가사와 돌봄 노동 공정 분담에 대해 86.9%가 동의하는 등 전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그렇다 응답
→ 성별에 대한 가족내 역할 분리에 대해서 19%가 동의
- V 전통적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15%만이 동의하였으나, 아들과 딸을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37.3%가 동의
- V 전반적으로 한국사회를 성차별적 사회로 인식하는 경우는 77.7%였음
- V 모든 문항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평등적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국사회를 성차별적인 사회"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94%, 남성이 62.6%로 큰 차이를 보임

2. 조사결과

① 성평등

성평등인식(긍정 답변)

문항	전체	남성	여성
아들과 딸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워야 한다	37.3	46.8	27.0
남자는 진취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하며, 여성은 차분하고 온순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15.0	21.6	7.9
아이양육은 엄마에게, 가족의 부양은 아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19.0	23.3	14.4
맞벌이 부부는 가사와 육아를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86.9	83.6	90.4
동일한 노동이라면 남녀의 임금은 동일해야 한다	88.3	83.8	93.1
현재 한국 사회는 성차별적 사회이다	77.7	62.6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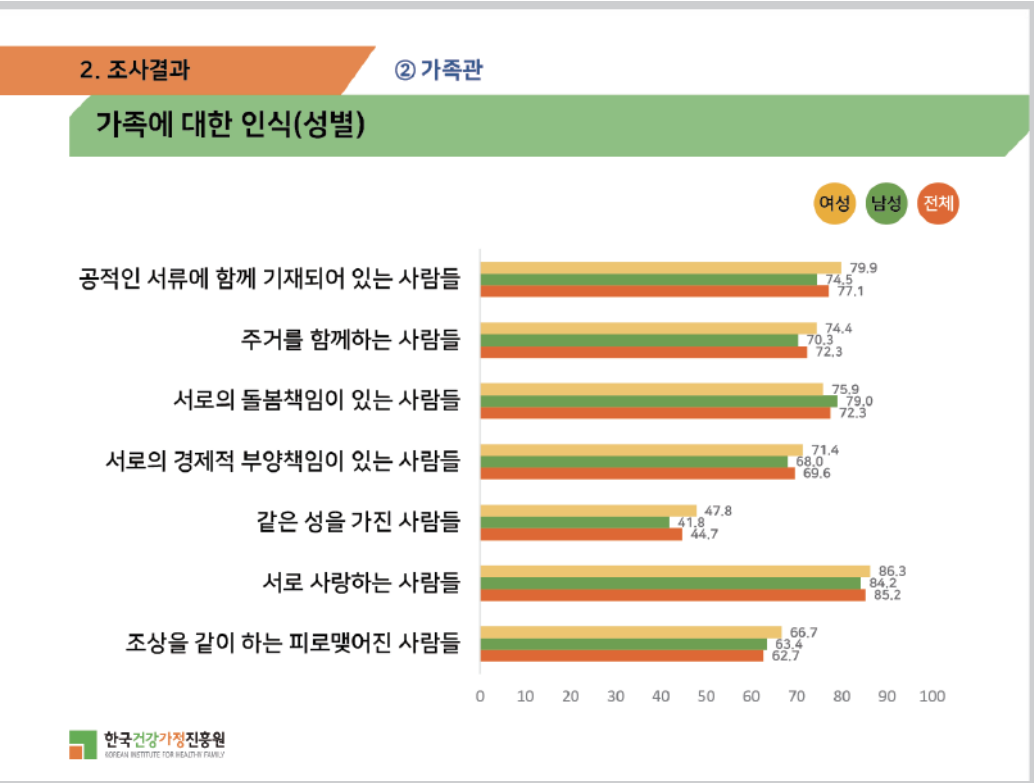
2. 조사결과

② 가족관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정의에 대한 7가지의 진술문에 대해 각각 얼마나 동의하는지?

- V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85.2%, '서로의 돌봄 책임이 있는 사람들' 77.5%, '공적인 서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77.1%,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 72.3% 등 70% 이상의 "그렇다"로 응답
- V 주거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전통적인 가족관에 대해서는 각각 72.3%, 69.6%로 나타남
- V 같은姓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문항에는 44.7%만이 동의하였음
- V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각각의 가족의 정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서로의 돌봄 책임(간병, 일상)이 있는 사람들"에는 여성보다 긍정응답비율이 높음
- V 연령별로는 20~24세 응답자들이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70.0%)',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87.9%)', '서로의 경제적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들(74.6%)', '공적인 서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83.3%)'이라는 진술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그렇다'의 응답이 가장 높음



2. 조사결과 ② 가족관

가족에 대한 인식(연령대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	70.0	67.8	59.3	54.7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87.9	84.1	84.9	84.1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42.5	45.2	45.2	45.7
서로의 경제적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들	74.6	68.6	65.4	69.5
서로의 돌봄 책임이 있는 사람들	78.0	74.2	76.6	80.8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	72.9	76.2	68.6	71.3
공적인 서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83.3	75.8	73.1	76.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FKI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③ **결혼관**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 V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에 대한 9가지 질문에 대해
→ 가장 많이 동의하는 문항은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가 81.6%로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결혼은 나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준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63.7%로 그 다음이었음
- V 남성은 주로 결혼의 장점에 동의의 비율이 높고, 여성은 주로 단점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높은 경향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전체	남성	여성
결혼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55.0	61.2	48.2
결혼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39.6	43.4	35.5
결혼은 나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준다	63.7	70.9	55.9
결혼은 나만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	60.4	53.0	68.4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	47.9	40.6	55.8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담스럽다	53.2	41.8	65.5
결혼은 나의 직업경력을 방해한다	42.4	23.5	62.7
결혼 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60.1	49.5	71.6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81.6	77.0	86.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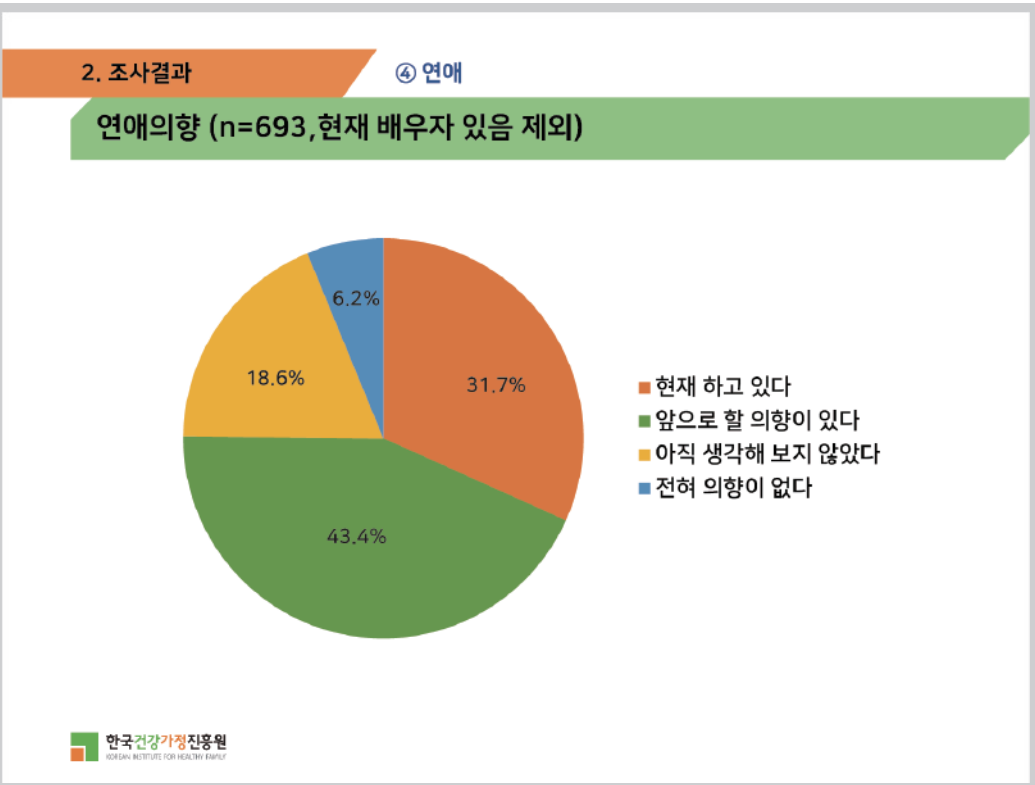
2. 조사결과 ③ **결혼관**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 V 연령별로는 생애주기적 발달과업 혹은 성장관점에서 보는 질문에 해당하는 세 개 문항에 대해 30~34세가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또한,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도 가장 높은 집단이었음
- V 자유와 권한의 침해에 대한 동의는 25~29세가 가장 높았음
- V 결혼으로 인한 경제, 관계, 직업능력, 주변의 기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동의는 20~24세가 가장 높았음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결혼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49.6	48.0	65.1	57.8
결혼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	41.3	37.7	42.0	37.9
결혼은 나의 불안정성을 보완해준다	57.5	64.3	71.6	62.1
결혼은 나만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한다	60.4	64.7	55.7	60.3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아깝다	55.0	46.4	42.5	47.5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부담스럽다	59.6	51.6	49.1	52.4
결혼은 나의 직업경력을 방해한다	50.8	39.7	39.4	40.0
결혼 이후 자녀출산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63.0	57.6	61.9	44.8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82.1	81.8	84.5	78.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④ 연애

연애의향 (성별, 연령대별)

- V 기혼자를 제외한 693명 중 220명의 응답 중 31.7%가 '현재 연애 중'으로 여성의 비율이 34.6%로 남성(24.1%)에 비해 높음
- V 향후 연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01명으로 43.4%였고, 남성이 47.6%로 여성보다 높아, 향후 연애 의향은 남성이 더 높음
- V '생각해보지 않았다'나, '전혀 의향이 없다' 등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경우는 여성이 26.8%로 남성(23.1%)보다 높음
- V 연령별로는 20~24세 집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연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여성이 11.3%로 남성 7.2%에 비해 높았음

구분	사례수	현재 하고 있다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전혀 의향이 없다	
		사례수	비율 (%)	사례수	비율 (%)	사례수	비율 (%)	사례수	비율 (%)
전체	(693)	(220)	31.7	(301)	43.4	(129)	18.6	(43)	6.2
남자	20~24세	(125)	(32) 25.6	(61) 48.8	(23) 18.4	(9) 7.2			
	25~29세	(120)	(42) 35.0	(51) 42.5	(20) 16.7	(7) 5.8			
	30~34세	(69)	(21) 30.4	(36) 52.2	(10) 14.5	(2) 2.9			
	35~39세	(58)	(14) 24.1	(29) 50.0	(13) 22.4	(2) 3.4			
소계	(372)	(109) 29.3	(177) 47.6	(66) 17.7	(20) 5.4				
여자	20~24세	(115)	(39) 33.9	(36) 31.3	(27) 23.5	(13) 11.3			
	25~29세	(92)	(39) 42.4	(34) 37.0	(14) 15.2	(5) 5.4			
	30~34세	(63)	(25) 39.7	(25) 39.7	(12) 19.0	(1) 1.6			
	35~39세	(51)	(8) 15.7	(29) 56.9	(10) 19.6	(4) 7.8			
소계	(321)	(111) 34.6	(124) 38.6	(63) 19.6	(23) 7.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④ 연애

연애에 대한 인식(성별)

연애에 대한 인식	전체	남성	여성
연애를 하려면 경제적 상황이 준비되어야 한다	80.1	79.2	81.1
연애는 취업이나 진학 등 미래준비에 걸림돌이 된다	42.3	41.4	43.3
연애 대상자도 결혼 상대만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	73.8	68.8	79.2
연애를 하려면 외모를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	87.3	87.8	86.7
고정된 성역할 구분으로 연애하는 것이 싫다 *	76.0	71.7	80.7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17.2	21.8	12.2
연애로 인해 자신만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잃어버린다	52.4	53.8	51.0
연애에 수반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	66.4	68.4	64.2
연애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47.8	47.4	48.3
연애는 어렵다	68.8	69.7	67.8
연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69.9	64.8	75.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④ 연애

연애에 대한 인식(연령대별)

연애에 대한 인식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연애를 하려면 경제적 상황이 준비되어야 한다 *	85.5	82.6	83.2	71.0
연애는 취업이나 진학 등 미래준비에 걸림돌이 된다 *	53.3	41.3	39.4	36.2
연애 대상자도 결혼 상대만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	67.1	71.1	78.7	78.1
연애를 하려면 외모를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83.3	88.5	89.9	87.6
고정된 성역할 구분으로 연애하는 것이 싫다 *	76.7	78.6	72.1	76.3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11.7	16.3	18.6	21.6
연애로 인해 자신만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잃어버린다 *	56.2	50.7	51.3	51.5
연애에 수반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	73.8	68.3	65.5	59.2
연애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	57.9	46.1	43.4	44.3
연애는 어렵다	73.3	68.6	69.5	64.5
연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80.0	69.4	65.1	65.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④ 연애

현재 연애중은 31.7%, 연애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집단은 25~29세

- 남성과 여성모두: 25~29세 > 30~34세 > 20~24세 > 35~39세
- 연애에 의향이 없는 경우(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전혀의향없음)가 24.8%

연애인식(성별)

- 여성은 주로 미래 준비 관련에 동의 비율이 높고, 남성은 비용이나 사회적 시선 등에 동의 비율이 각각 반대 성별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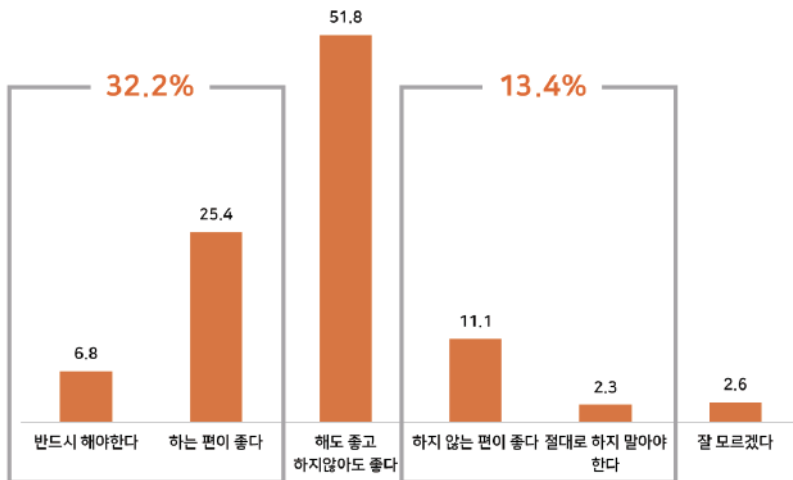
20~24세의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

- 전혀 의향이 없다: 남성 7.2%, 여성 11.3%
- 연애를 하려면 경제적 상황이 준비되어야 한다 85.5%, 연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80%, 비용부담 73.8%, 연애가 어렵다 73.3%
- 연애 의향이 없는 주요 사유: 남성은 경제적인 사유(66.7%), 여성은 연애 관계에 구속되기 싫어서(46.2%)가 1순위



2. 조사결과 ⑤ 결혼

결혼의향(n=1,000, 전체)



2. 조사결과

⑤ 결혼

결혼의향(2030 전체)

- V 응답자의 32.2% 결혼 의향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과반인 51.8%가 '해도 좋고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음
- V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43%, 여성의 20.6%가 결혼 의향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반드시 해야한다(남성 10.8%, 여성 2.5%), 하지 않는 편이 좋다(남성 7.1%, 여성 15.4%)로 나타남
- V 20~24세 집단의 경우 남성은 16%, 여성은 1.7%가 반드시 해야 한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성 3.2%, 여성은 7.0%로 차이가 컸음

	시행수	반드시해야한다	하는편이좋다	해도좋고아도않아도좋다	하지않는편이좋다	절대로하지말아야한다	절대로안한다
전체	(1,000)	(68) 6.8	(254) 25.4	(518) 51.8	(111) 11.1	(23) 2.3	(26) 2.6
남자	20~24세 (125)	(20) 16.0	(33) 26.4	(51) 40.8	(11) 8.8	(4) 3.2	(6) 4.8
	25~29세 (134)	(14) 10.4	(39) 29.1	(61) 45.5	(10) 7.5	(2) 1.5	(8) 6.0
	30~34세 (116)	(7) 6.0	(45) 38.8	(50) 43.1	(10) 8.6	(3) 2.6	(1) .9
	35~39세 (144)	(15) 10.4	(50) 34.7	(67) 46.5	(6) 4.2	(3) 2.1	(3) 2.1
소계	(519)	(56) 10.8	(167) 32.2	(229) 44.1	(37) 7.1	(12) 2.3	(18) 3.5
여자	20~24세 (115)	(2) 1.7	(14) 12.2	(61) 53.0	(29) 25.2	(8) 7.0	(1) .9
	25~29세 (118)	(4) 3.4	(22) 18.6	(68) 57.6	(20) 16.9	(1) .8	(3) 2.5
	30~34세 (110)	(5) 4.5	(29) 26.4	(66) 60.0	(6) 5.5	(2) 1.8	(2) 1.8
	35~39세 (138)	(1) .7	(22) 15.9	(94) 68.1	(19) 13.8		(2) 1.4
소계	(481)	(12) 2.5	(87) 18.1	(289) 60.1	(74) 15.4	(11) 2.3	(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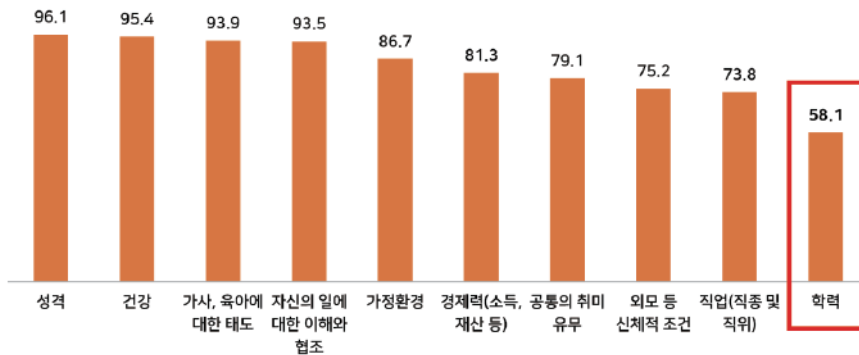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⑤ 결혼

배우자의 조건

- V 90% 이상의 동의 : 성격>건강>가사, 육아에 대한 태도>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 V 학력은 58.1%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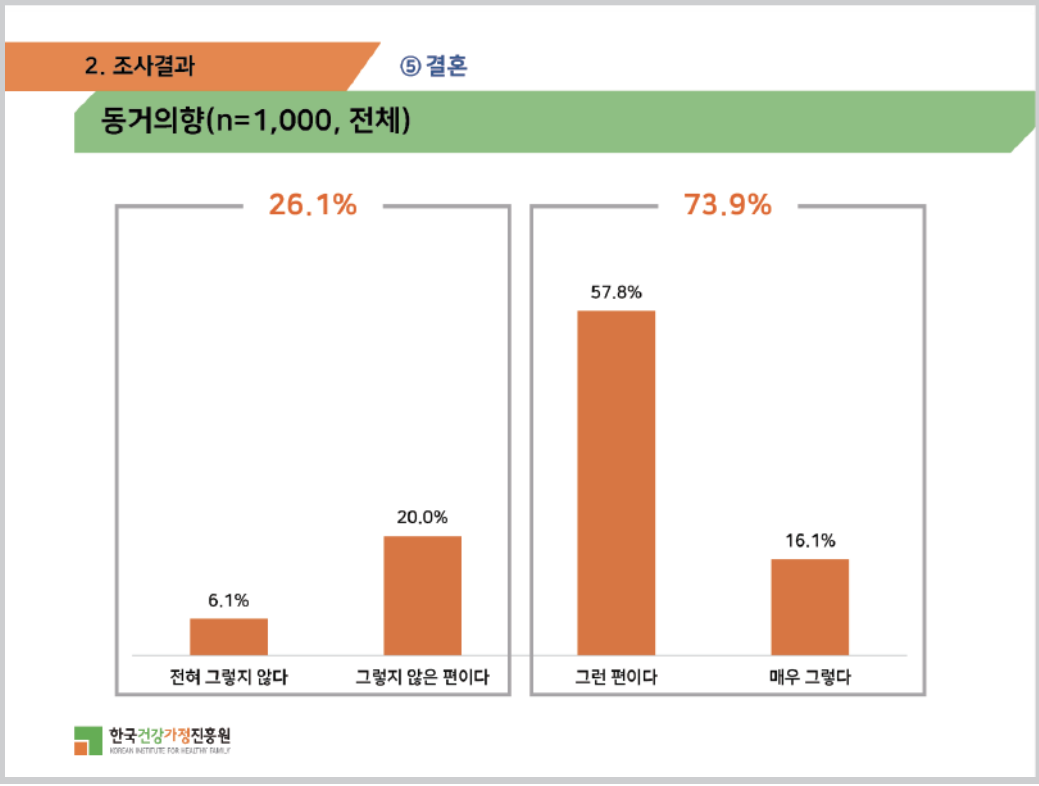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⑤ 결혼

배우자의 조건(결혼 의향별)

구분	긍정	중립	부정	전체
학력	57.8	56.2	65.0	58.1
직업(직종 및 직위)	68.3	74.5	82.5	73.8
경제력(소득, 재산 등)	74.2	84.0	86.9	81.3
성격	97.2	97.1	90.6	96.1
외모 등 신체적 조건	77.0	74.3	74.4	75.2
건강	96.6	96.7	88.7	95.4
공통의 취미 유무	78.2	81.1	74.4	79.1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93.8	94.0	91.3	93.5
가사, 육아에 대한 태도	94.7	94.8	89.4	93.9
가정환경	85.8	88.0	84.4	86.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⑤ 결혼

동거의향(성별, 성별에 따른 연령별)

- V 응답자의 73.9%가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V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81.5%, 여성은 68.3%로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V 연령별로는 남성집단에서는 35~39세인 경우, 여성은 25~29세인 경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연령 집단은 남성과 여성 모두 30~34세 집단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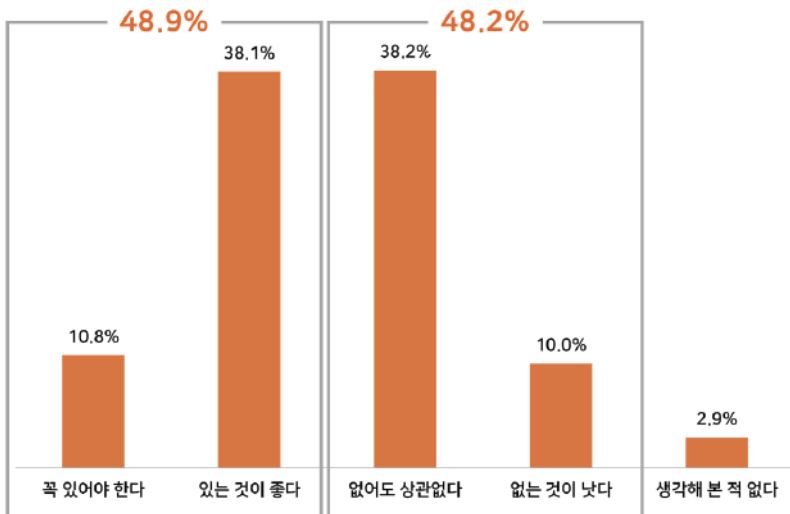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000)	(61) 6.1	(200) 20.0	(578) 57.8	(161) 16.1	(261) 26.1	(739) 73.9
남자	20~24세	(125) (5) 4.0	(20) 16.0	(77) 61.6	(23) 18.4	(25) 20.0	(100) 80.0
	25~29세	(134) (7) 5.2	(18) 13.4	(78) 58.2	(31) 23.1	(25) 18.7	(109) 81.3
	30~34세	(116) (8) 6.9	(12) 10.3	(69) 59.5	(27) 23.3	(20) 17.2	(96) 82.8
	35~39세	(144) (5) 3.5	(26) 18.1	(92) 63.9	(21) 14.6	(31) 21.5	(113) 78.5
소계	(372)	(14) 3.8	(55) 14.8	(225) 60.5	(78) 21.0	(69) 18.6	(303) 81.5
여자	20~24세	(115) (9) 7.8	(27) 23.5	(55) 47.8	(24) 20.9	(36) 31.3	(79) 68.7
	25~29세	(118) (6) 5.1	(36) 30.5	(64) 54.2	(12) 10.2	(42) 35.6	(76) 64.4
	30~34세	(110) (16) 14.5	(18) 16.4	(67) 60.9	(9) 8.2	(34) 30.9	(76) 69.1
	35~39세	(138) (5) 3.6	(43) 31.2	(76) 55.1	(14) 10.1	(48) 34.8	(90) 65.2
소계	(321)	(25) 7.8	(77) 24.0	(170) 53.0	(49) 15.3	(102) 31.8	(219) 68.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FK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⑥ 자녀

결혼 후 자녀관(n=1,000, 전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FK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⑥ 자녀
결혼 후 자녀관(성별, 성별에 따른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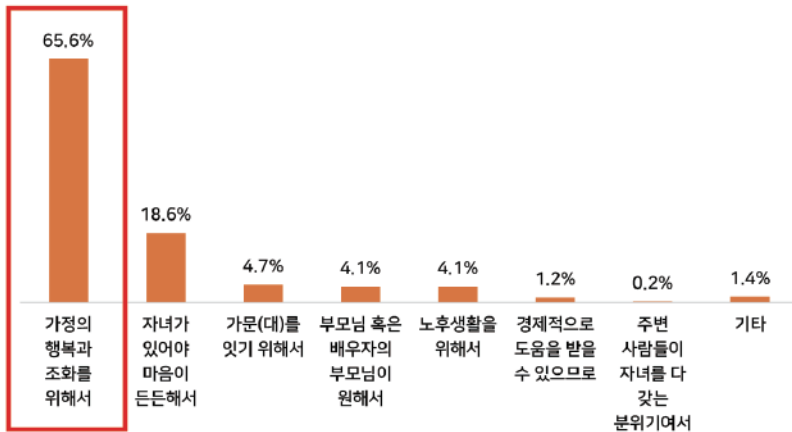
- V 응답자의 38.1%가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가운데, 긍정과 부정적인 응답 비율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음
- V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56.3%, 여성의 41.0%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 V 남성 중 20~24세는 '꼭 있어야 한다'가 14.4%, 여성은 3.5%, '없는 것이 낫다'는 남성 7.2%, 여성 28.7%

	사례수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없는 것이 낫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전체	(1,000)	(108) 10.8	(381) 38.1	(382) 38.2	(100) 10.0	(29) 2.9
남자	20~24세	(125) (18) 14.4	(48) 38.4	(43) 34.4	(9) 7.2	(7) 5.6
	25~29세	(134) (17) 12.7	(51) 38.1	(46) 34.3	(12) 9.0	(8) 6.0
	30~34세	(116) (11) 9.5	(51) 44.0	(45) 38.8	(8) 6.9	(1) .9
	35~39세	(144) (28) 19.4	(68) 47.2	(43) 29.9	(4) 2.8	(1) .7
소계	(519)	(74) 14.3	(218) 42.0	(177) 34.1	(33) 6.4	(17) 3.3
여자	20~24세	(115) (4) 3.5	(26) 22.6	(50) 43.5	(33) 28.7	(2) 1.7
	25~29세	(118) (8) 6.8	(43) 36.4	(47) 39.8	(17) 14.4	(3) 2.5
	30~34세	(110) (11) 10.0	(42) 38.2	(45) 40.9	(7) 6.4	(5) 4.5
	35~39세	(138) (11) 8.0	(52) 37.7	(63) 45.7	(10) 7.2	(2) 1.4
소계	(481)	(34) 7.1	(163) 33.9	(205) 42.6	(67) 13.9	(12) 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⑥ 자녀
자녀가 있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n=482, 긍정 응답자)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하여'가 65.6%로 압도적, 그 뒤로 '자녀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서'가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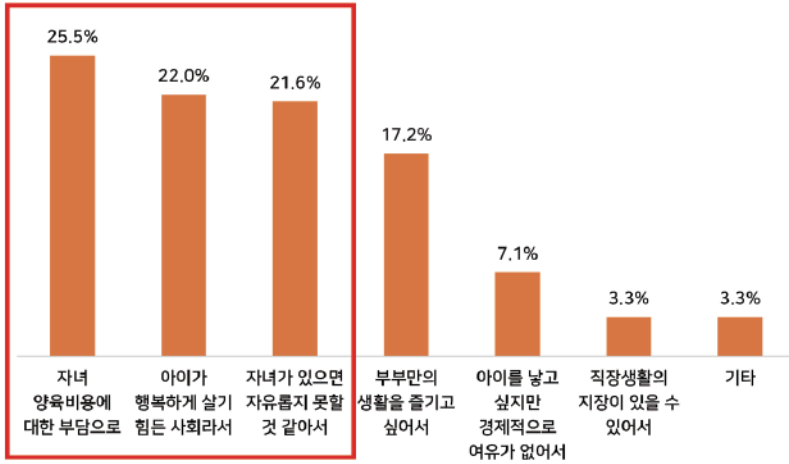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㉔ 자녀

자녀가 없는 나은 이유(n=489, 부정 응답자)

'양육비 부담', '한국사회 불안', '개인 및 부부의 자유 침해' 등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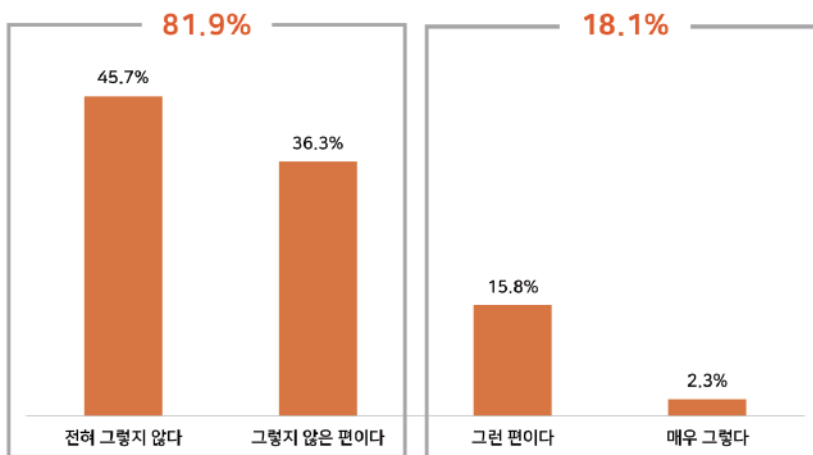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㉔ 자녀(비혼임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n=1,000, 전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㉞ 자녀(비혼임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성별,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 V 응답자의 81.9%가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
- V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78.1%, 여성은 86.1%로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V 연령별로는 남성집단과 여성모두 20~24세인 경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응답비율은 79.2%, 93.0%로 본 조사 중 가장 어린 연령집단의 여성들의 부정적 응답이 매우 높았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연령집단은 남성과 여성 모두 30~34세 집단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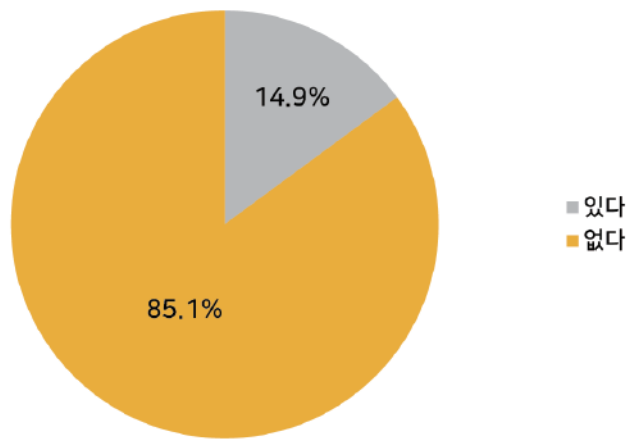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1,000)	(457) 45.7	(362) 36.2	(158) 15.8	(23) 2.3	(819) 81.9	(181) 18.1
남자	20~24세	(125) (50) 40.0	(49) 39.2	(20) 16.0	(6) 4.8	(99) 79.2	(26) 20.8
	25~29세	(134) (56) 41.8	(50) 37.3	(25) 18.7	(3) 2.2	(106) 79.1	(28) 20.9
	30~34세	(116) (48) 41.4	(40) 34.5	(25) 21.6	(3) 2.6	(88) 75.9	(28) 24.1
	35~39세	(144) (54) 37.5	(58) 40.3	(28) 19.4	(4) 2.8	(112) 77.8	(32) 22.2
소계	(519)	(208) 40.1	(197) 38.0	(98) 18.9	(16) 3.1	(405) 78.1	(114) 22.0
여자	20~24세	(115) (70) 60.9	(37) 32.2	(7) 6.1	(1) 0.9	(107) 93.0	(8) 7.0
	25~29세	(118) (61) 51.7	(39) 33.1	(17) 14.4	(1) 0.8	(100) 84.7	(18) 15.3
	30~34세	(110) (54) 49.1	(36) 32.7	(18) 16.4	(2) 1.8	(90) 81.8	(20) 18.2
	35~39세	(138) (64) 46.4	(53) 38.4	(18) 13.0	(3) 2.2	(117) 84.8	(21) 15.2
소계	(481)	(249) 51.8	(165) 34.3	(60) 12.5	(7) 1.5	(414) 86.1	(67) 14.0



2. 조사결과

㉞ 자녀(입양)

(결혼과 상관없이) 입양할 의향 (n=1,000, 전체)



2. 조사결과

㉔ 자녀(입양)

(결혼과 상관없이) 입양할 의향(성별,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 V 응답자의 85.1%가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입양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 V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이 83.8%, 여성은 86.5%로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V 연령별로는 남성집단은 30~34세, 여성은 25~29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각각 87.1%, 87.3%로 가장 높았음. 입양선택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던 경우는 남성 25~29세 17.9%, 여성 30~34세 14.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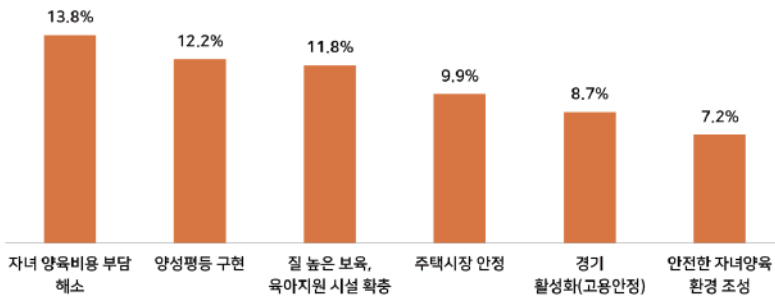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149)	14.9	(851)	85.1
남자	20~24세	(125)	(22)	17.6	(103)	82.4
	25~29세	(134)	(24)	17.9	(110)	82.1
	30~34세	(116)	(15)	12.9	(101)	87.1
	35~39세	(144)	(23)	16.0	(121)	84.0
소계		(519)	(84)	16.2	(435)	83.8
여자	20~24세	(115)	(15)	13.0	(100)	87.0
	25~29세	(118)	(15)	12.7	(103)	87.3
	30~34세	(110)	(16)	14.5	(94)	85.5
	35~39세	(138)	(19)	13.8	(119)	86.2
소계		(481)	(32)	13.5	(449)	86.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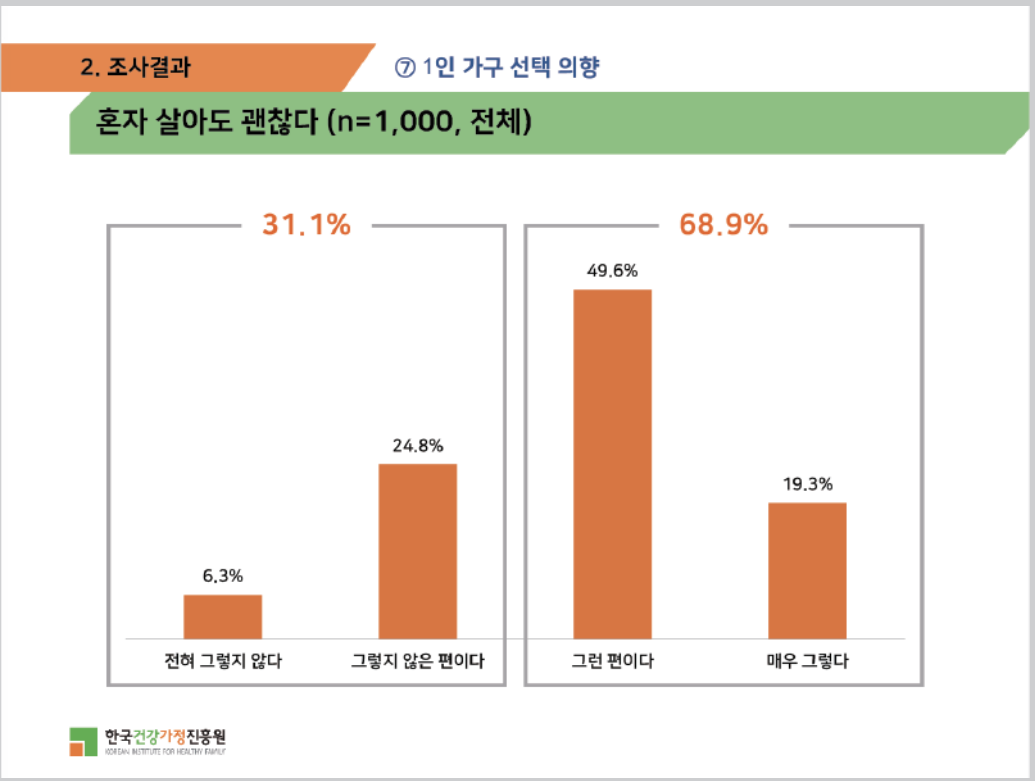
㉔ 자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1위	2위	3위
1순위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13.8%	양성평등 구현 12.2%	질 높은 보육, 육아지원 시설 확충 11.8%
2순위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18.2%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2.7%	질 높은 보육, 육아지원 시설 확충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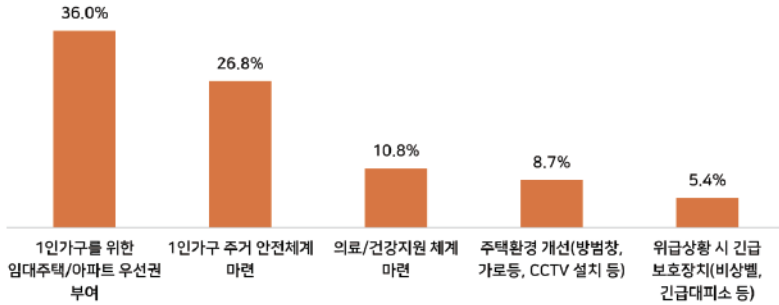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㉞ 1인 가구 선택 의향

혼자 산다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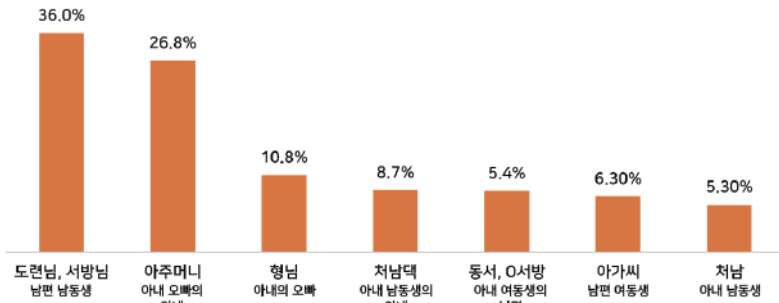
	1위	2위	3위
1순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아파트 우선권 부여 36.0%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계 마련 26.8%	의료/건강지원체계 마련 10.8%
2순위	1인가구 주거 안전체계 마련 23.6%	의료/건강지원체계 마련 21.7%	주택 환경 개선 (방범창, 가로등, CCTV 설치 등) 14.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 조사결과

㉟ 호칭

가족호칭(바람직하지 않은 배우자 가족호칭)



	1위	2위	3위	4위	5위
1순위	도련님, 서방님/ 남편의 남동생 28.4%	아주머니/ 아내 오빠의 아내 21.7%	형님/ 아내의 오빠 8.7%	처남댁/ 아내 남동생 아내 7.0%	동서, 0서방/ 아내 여동생 남편 6.9%
2순위	아가씨/ 남편의 여동생 17.3%	도련님, 서방님/ 남편의 남동생 16.6%	서방님/ 남편 여동생 남편 12.1%	아주머니/ 아내 오빠의 아내 7.0%	처남댁/ 아내 남동생 아내 8.8%
3순위	서방님/ 남편 여동생 남편 21.0%	아가씨/ 남편의 여동생 13.6%	도련님, 서방님/ 남편의 남동생 11.9%	아주머니/ 아내 오빠의 아내 6.9%	동서, 0서방/ 아내 여동생 남편 6.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3. 가족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본 가족서비스 수요

3. 서비스 수요

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

1. 결혼에 중립적인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배우자 조건

-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들은 학력, 직업, 경제력 등 개인적 SES를 주요한 배우자의 조건으로 생각
- 중립적인 사람들의 경우 **건강, 공통의 취미와 유무,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조, 가사, 육아에 대한 태도, 가정환경** 등을 중요한 배우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즉, 좀더 평등한 관계, 향후 돌봄과 관계공동체를 꾸려갈 상대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2. 결혼관계의 질에 대한 서비스 요구

- 안할 수도 있었던 결혼을 '이 배우자'로 인해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 질것으로 보여 결혼에 대한 유지 요구와 갈등 조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맞벌이 가정, 공통의 취미생활 등 지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개발 필요

3. 서비스 수요

② 제도화된 결혼이외에서의 자녀출산 기피

1. 결혼 후 자녀 출산에 대한 필요성 감소, but 서비스 욕구 증가

- 결혼 후 자녀를 가지는 것에 긍정과 부정적 답변에 차이가 없었음
-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자녀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양질의 자녀양육 욕구, 자녀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출산을 가지는 경우 정책지원서비스 욕구 등 향후 자녀양육에 관련된 요구 증가 가능성

2. 비혼 자녀 출산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방지와 이혼 후 자녀양육

- 결혼과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81.9%)하고 입양(85.1%)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향이 높은 편
- 그러나 동거 의향은 73.9%였고 30~34세 연령대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가장 높았음
- 따라서 동거 등의 관계에서 자녀를 가질 경우 결혼을 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면 비혼한부모 가정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후자의 경우 '차별과 혐오'로 양육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가족이란 공적인 서류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77.1%)이 여전히 높아 이혼 후 혹은 실질적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양육 책임 회피 가능성

3. 서비스 수요

③ 선명한 성평등 의식과 복합적 가족관련 의식

1. 성평등 의식이 높을 수록 결혼 선택은 유보적

- 성평등 의식은 결혼을 긍정(2.98점)→ 중립(3.21점)→ 부정(3.31점)으로 생각함에 따라 높았음
- 배우자 가족 호칭에서 고쳐야 할 점에서 1,2,3 순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남편의 가족에 대한 호칭을 고쳐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2. 상대적으로 선명한 성평등 의식에 비해 복합적 가족관련 의식

- 남녀의 문제와 아들과 딸의 문제를 다르게 보고, 사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성평등 의식이 다름
- 혈연 중심, 주거 공유, 공적인 서류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높고 여성의 긍정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상대적으로 성평등 의식에서는 진보적인 여성들, 그러나 가족관에서는 돌봄공동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경제적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동의하는 기존의 성역할에 근거한 답변
- 성인지적인 관점을 고수하면서도 개별 가족에게 맞는 갈등 해법(상담 등)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고민

3. 서비스 수요

④ 생애주기별 이행단계에 대한 접근

1. 20대 초반은 연애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고교 졸업 후 성인기에 진입하면 “연애”한다는 인식 재고 필요
- 지역에서 미/비혼 남녀 대상 프로그램의 연령대 고려
- 연애와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상성”에 대한 존중 필요
-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에 남녀 모두 20~24세 집단의 응답 비율 높았고, 이에 필요한 것으로 남성은 주거 우선권, 여성은 안전한 주거 체계를 1순위

2. 30대 초반은 동거에 긍정적이다

- 남녀 모두 30~34세의 동거 의향이 가장 긍정적
- 20대 초반에 직장이나 경제력 추구에 몰입한 후 30대 초반의 연애와 결혼의 욕구가 동거로 표출 될 수 있음
- 이에 이어질 수 있는 자녀출산, 가정폭력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검토 필요

[발제 2]

포스트코로나
가족문화 변화 가능성 :
명절보내기 실태를 중심으로

손서희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포스트코로나 가족문화 변화 가능성: 명절보내기 실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손서희

조사기획·추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자료분석 : 숙명여자대학교 손서희 교수



목 차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II 연구방법

III 조사결과

IV 결론 및 제언

V 참고문헌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와 가족생활

- ⑤ 코로나19는 생활시간, 가사노동, 가족돌봄, 여가활동 등의 **가족의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진미정 외, 2020)
- ⑤ **코로나19 상황 하의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음
 -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발표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등의 **이동 자제 당부**
 - 인터넷 차례 지내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등의 **비대면 추석 지원 방안 마련**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 하의 추석명절



*출처: 경기도뉴스포털(2020). "전국서 '귀성 자제' 캠페인 펼쳐져"
 새싹신문(2020). "불효자는 '옵'니다... 명절 이색 풍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G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 하의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 V 코로나19에 따른 전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처음 맞이한 올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가족생활 및 명절 문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함
- V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하의 명절 경험 및 향후 명절 변화 전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V 본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지원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G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 연구방법

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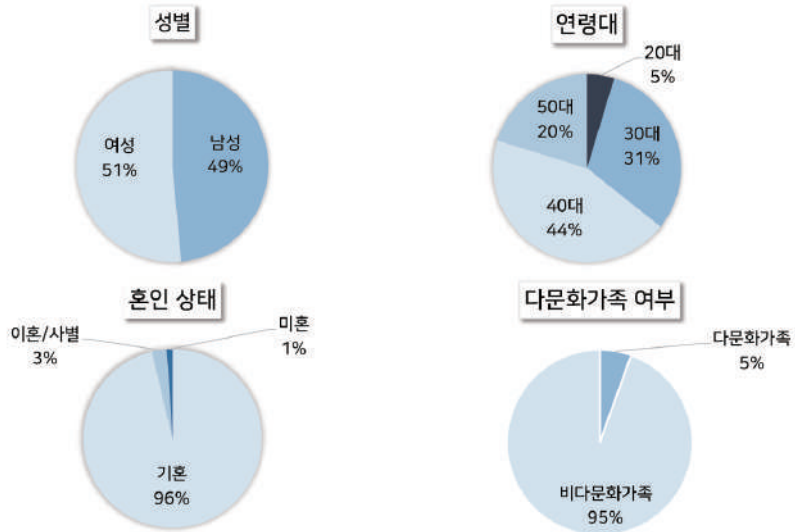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조사개요

조사 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최소한 한 분 이상 생존해 계시고, 혼인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일반 국민(미/비혼부모 포함)
표본 수	1,1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11.16 ~ 11.23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 가족 평등 수준 • 결혼에 대한 인식 •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방법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II. 연구방법

2. 응답자 특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HF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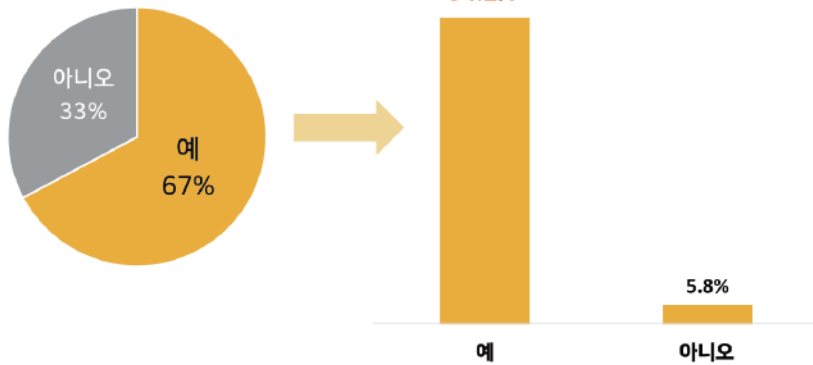
Ⅲ.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명절 경험 변화 유무

올해추석은 지난3년간의 추석명절과달랐습니까?

달랐다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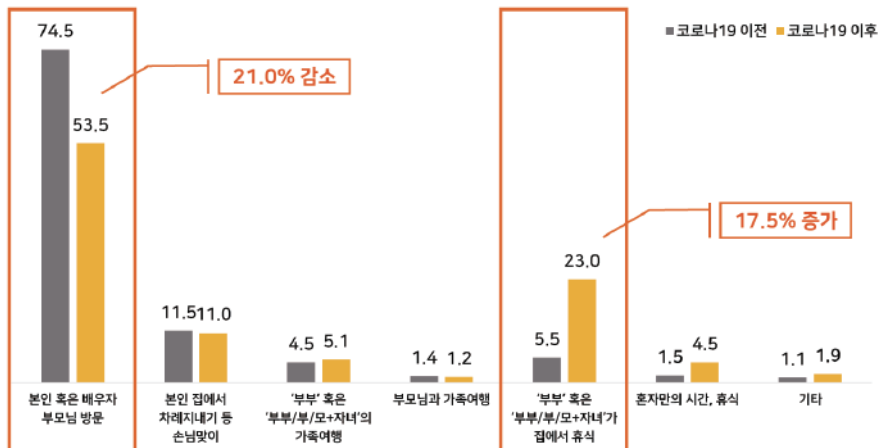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Ⅲ.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 맞이 모습 차이

: 코로나19 전후 추석맞이 모습 비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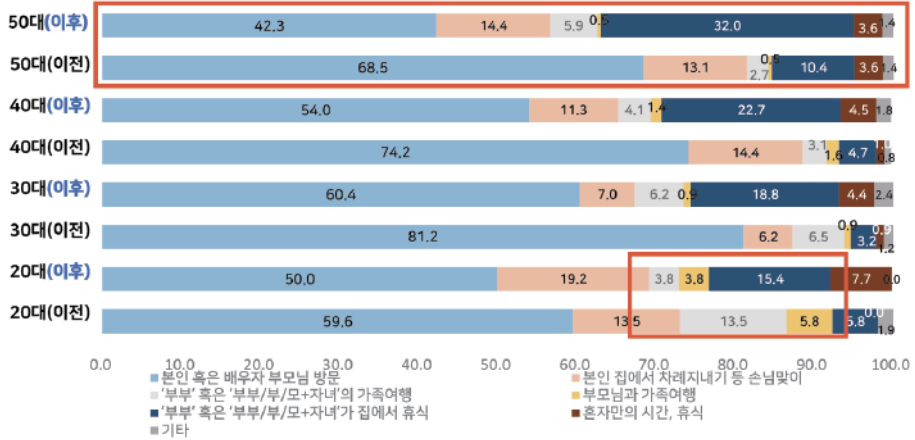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 맞이 모습 차이
: 코로나19 전후 추석 맞이 모습 비교(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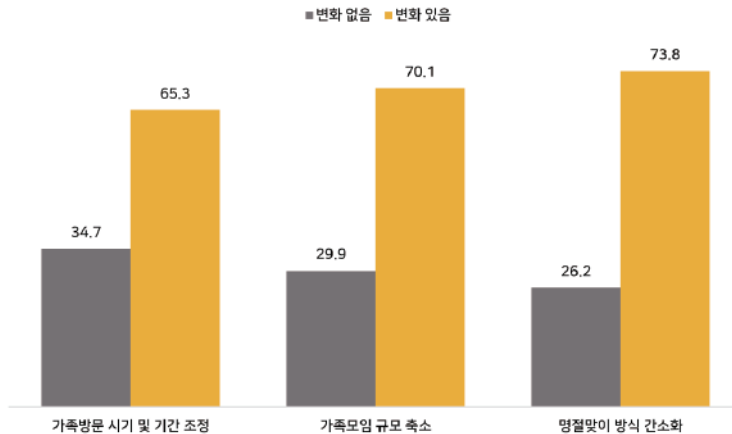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IDD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추석 명절 맞이 모습 차이
: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낸 경우 변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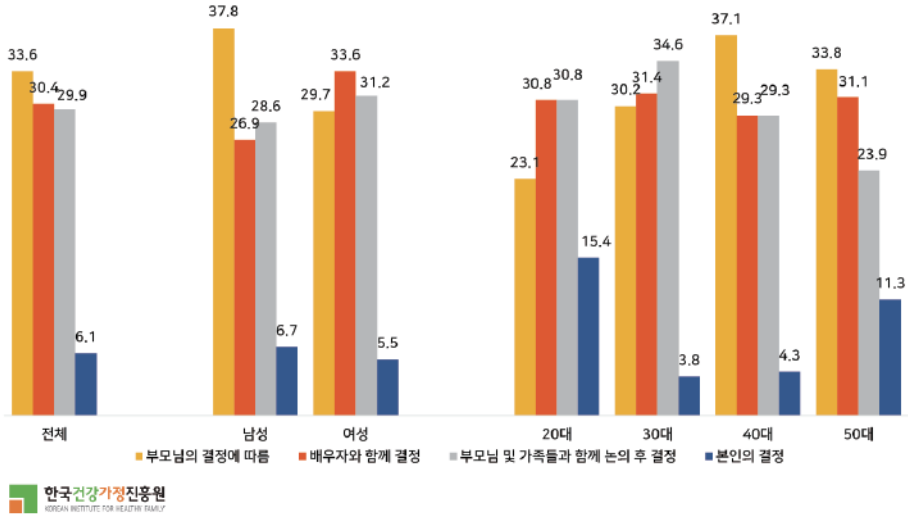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IDD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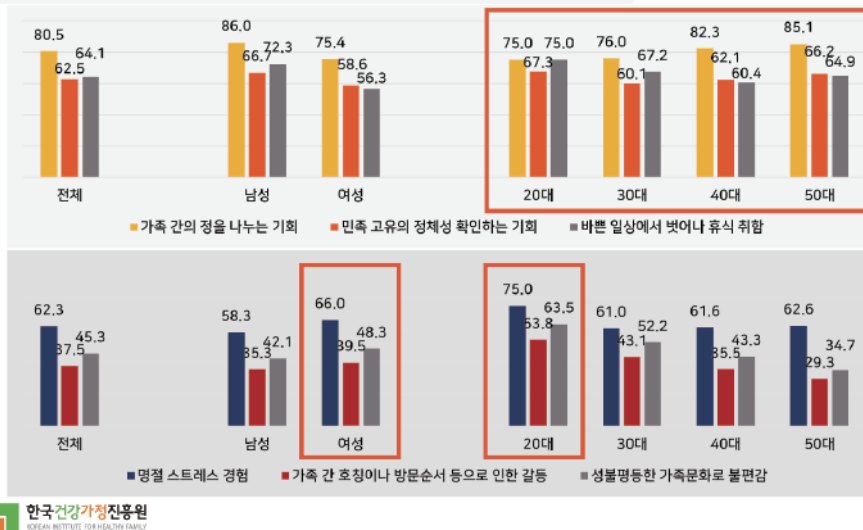
3) 올해 추석 명절 맞이 방식 결정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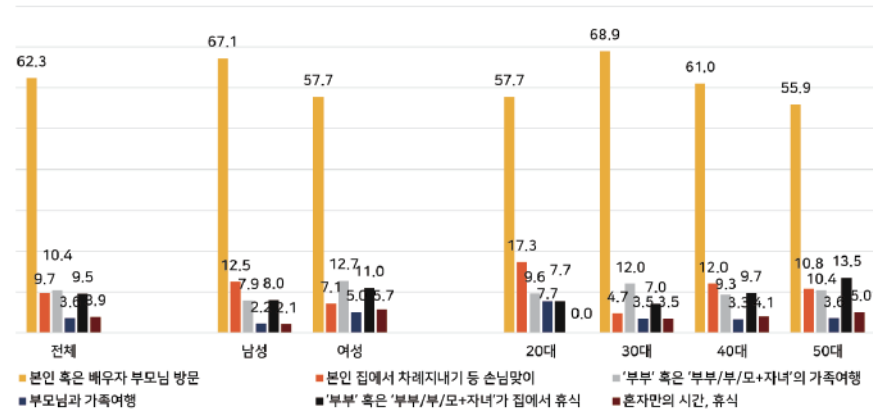
4) 지금까지의 명절 경험에 대한 인식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5) 보내고 싶은 추석 명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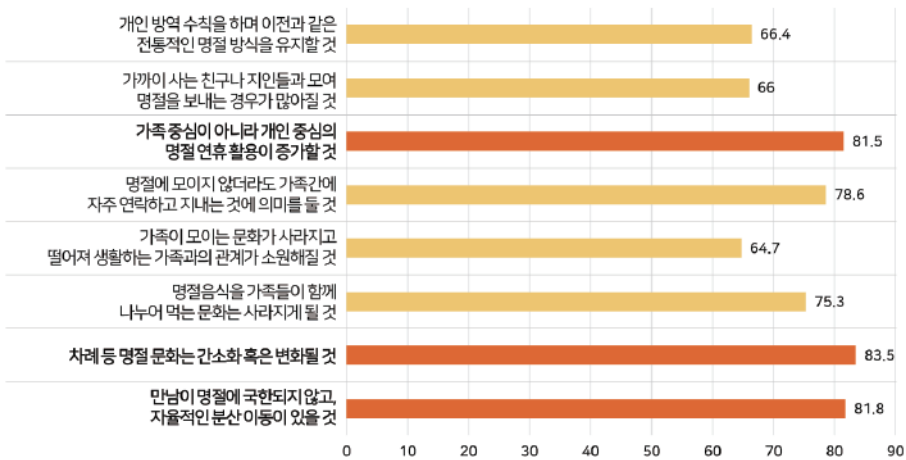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FK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1. 추석 명절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

6)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명절 문화 변화 전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FK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 ①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 ② 가족 평등 정도
- ③ 결혼에 대한 인식



III. 조사결과

①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1-1)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별 명절 경험

구분	남성				여성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불만족 (n=77)	만족 (n=430)	불만족 (n=65)	만족 (n=426)	불만족 (n=80)	만족 (n=459)	불만족 (n=137)	만족 (n=354)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	67.5	89.8	73.8	88.3	53.8	79.7	59.9	81.9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하는 기회	51.9	69.3	52.3	69.2	48.8	60.6	43.8	63.6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67.5	72.8	63.1	73.0	51.3	58.0	45.3	58.5
명절 스트레스 경험	74.0	56.5	70.8	56.6	65.0	66.0	70.1	65.8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 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44.2	33.5	46.2	34.0	46.3	38.6	54.0	34.2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44.2	41.4	47.7	40.1	56.3	46.8	59.9	46.3



III. 조사결과

①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1-2)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별 명절 변화 전망

구분	남성				여성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나의 부모		배우자 부모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 이동이 있을 것	70.1	87.0	72.3	86.9	65.0	81.5	75.9	80.8
차례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74.0	86.5	72.3	86.9	73.8	83.9	76.6	84.7
명절음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	74.0	76.0	67.7	76.1	67.5	77.1	71.5	76.3
가족이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79.2	62.1	67.7	64.6	65.0	64.3	63.5	63.6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80.5	79.3	80.0	79.3	68.8	80.2	73.7	80.5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명절 연휴 활용이 증가할 것	77.9	81.6	73.8	81.2	76.3	82.6	80.3	82.5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76.6	63.7	72.3	63.4	60.0	67.1	64.2	67.2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58.4	70.5	58.5	70.7	52.5	66.2	59.9	65.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D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② 가족 평등 정도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2-1) 가족 평등 수준별 추석 명절 경험

구분	낮음 (n=148)		보통 (n=850)		높음 (n=102)		F
	M	SD	M	SD	M	SD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	2.55 ^a	.75	2.96 ^b	.64	3.34 ^c	.70	44.71***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하는 기회	2.44 ^a	.75	2.68 ^b	.75	2.94 ^c	.85	13.23***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2.36 ^a	.94	2.71 ^b	.79	3.16 ^c	.86	28.17***
명절 스트레스 경험	2.76	.88	2.73	.80	2.57	.95	1.93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 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2.44 ^b	.87	2.26 ^{ab}	.85	2.04 ^a	1.05	6.41**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2.55 ^b	.90	2.40 ^b	.81	2.15 ^a	.99	7.04**

p<.01, *p<.00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D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III. 조사결과

② 가족 평등 정도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2-2) 가족 평등 수준별 명절 변화 전망

구분	낮음 (n=148)		보통 (n=850)		높음 (n=102)		F
	M	SD	M	SD	M	SD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 이동이 있을 것	2.71 ^a	.74	2.90 ^{ab}	.56	3.08 ^c	.66	11.99***
차레 등 명절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2.94 ^a	.73	3.08 ^a	.67	3.42 ^b	.65	16.19***
명절음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	2.74 ^a	.72	2.93 ^b	.68	3.07 ^b	.73	7.72***
가족이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2.61	.76	2.75	.73	2.78	.87	2.59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2.74 ^a	.81	2.95 ^b	.65	3.24 ^c	.75	16.22***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명절 연휴 활용이 증가할 것	2.95 ^a	.67	2.99 ^b	.64	3.18 ^b	.72	4.20*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2.66	.75	2.76	.69	2.78	.87	1.32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2.61 ^a	.78	2.76 ^{ab}	.65	2.86 ^b	.68	4.46*

*p<.05, ***p<.001



III. 조사결과

③ 결혼에 대한 인식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3-1)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추석 명절 경험

구분	부정적 (n=162)		보통 (n=814)		긍정적 (n=124)		F
	M	SD	M	SD	M	SD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	2.68 ^a	.76	2.96 ^b	.65	3.20 ^c	.70	21.71***
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인하는 기회	2.34 ^a	.80	2.71 ^b	.74	2.85 ^b	.84	19.94***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취함	2.25 ^a	1.01	2.76 ^b	.77	2.96 ^b	.84	32.51***
명절 스트레스 경험	3.00 ^c	.94	2.71 ^b	.77	2.37 ^a	.91	20.99***
가족 간 호칭이나 방문순서 등으로 인한 갈등	2.56 ^c	.93	2.29 ^b	.83	1.69 ^a	.82	38.32***
성불평등한 가족문화로 불편감	2.69 ^c	.95	2.42 ^b	.78	1.84 ^a	.88	39.50***

***p<.001



III. 조사결과

③ 결혼에 대한 인식

2. 가족 및 혼인 관련 특성별 추석 명절 경험 및 변화 전망

3-2)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른 명절 변화 전망

구분	부정적 (n=162)		보통 (n=814)		긍정적 (n=124)		F
	M	SD	M	SD	M	SD	
만남이 명절 연휴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인 분산 이동이 있을 것	2.95	.69	2.86	.58	3.00	.60	3.76*
차례 등 명절 문화는 간소화 혹은 변화될 것	3.12 ^{ab}	.78	3.06 ^a	.66	3.28 ^b	.63	6.07**
명절음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	3.01	.80	2.91	.66	2.90	.75	1.50
가족이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	2.80 ^b	.85	2.77 ^b	.72	2.43 ^a	.76	12.24***
명절에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간에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것에 의미를 둘 것	3.04	.81	2.92	.66	3.02	.69	2.50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명절 연휴 활용이 증가할 것	3.20 ^b	.70	2.97 ^a	.64	2.93 ^a	.69	8.83***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2.93 ^b	.78	2.72 ^a	.69	2.69 ^a	.75	6.01**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이 유지될 것	2.70	.80	2.74	.65	2.83	.66	1.30

*p<.05, **p<.01, ***p<.001



IV. 결론 및 제언

IV. 결론 및 제언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된 추석 명절

-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하에 맞이한 2020년 추석 명절은 이전의 명절과는 다른 모습이었음
 - 가족 방문 감소, 집에서 휴식 취한 경우 증가
 - 방문 시기 및 기간 조정, 모임 규모 축소, 명절맞이 방식 간소화 등의 변화
- 변화된 명절 경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명절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IV. 결론 및 제언

2. 감염병 위험 경험에 따른 명절 문화 변화 예측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 경험은 '민족 대이동'으로 상징되던 명절 고유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우리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명절 문화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음
-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가족 만남 시기의 분산, 명절 문화의 간소화/변화, 가족 중심보다 개인 중심의 명절 연휴 활용 증가 등의 명절 문화 변화를 전망하였음
-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명절 문화 변화 전망을 조사하였음.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 변화/종식 이후, 명절 문화 변화 전망에 대한 조사와의 비교 연구를 제안함
- 사회 변화와 함께 한국 가족의 명절 문화 변화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IV. 결론 및 제언

3.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확대

- 성별, 연령별, 가족 관계 경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명절에 대한 경험, 이상적인 명절 모습 및 구체적인 변화 방향에 대한 응답이 상이하였음.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관계 경험 및 결혼에 대한 인식은 실제 추석 경험 및 명절 변화 전망과 관련됨
 -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지난 명절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이었음
 - 대부분의 조사참여자가 명절의 변화를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이전의 명절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간의 모임이나 만남이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반면, 부모-자녀 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남성)와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가 사라지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것”, “가까이 사는 친구나 지인들과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 과 같은 가족간의 유대감 감소와 같은 변화 전망에 동의하는 경우가 높았음

IV. 결론 및 제언

3.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 확대

- 가족관계 강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하는 명절 연휴를 보내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 또한 가족관계가 건강할 때, 명절의 변화 양상과 관계 없이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부모-자녀 간의 친밀감 향상,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을 통해 모든 가족구성원이 가족 간의 정을 느끼고,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62.3%의 조사대상자들은 이상적인 명절의 모습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을 꼽았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다가오는 ‘설’ 명절 또한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울 수 있음. 지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V. 참고문헌

- 경기도뉴스포털(2020). 전국서 '귀성 자체' 캠페인 펼쳐져.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251540012978C048
- 새전북신문(2020). 불효자는 '옵'니다... 명절 이색풍경.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4514>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토론 1]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명절 보내기와
가족문화의 변화 방향

조성은 실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다. 한 해의 시작은 새해 첫날인 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 해의 시작은 양력 1월 1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설날은 우리의 절기에 따른 새해 첫날의 의미가 있다. 그 절기의 의미가 남아 있다는 것은 설에 차례와 세배 지내며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고 윷놀이를 하는 명절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설 무렵이 되면, 시장에서는 가래떡을 자른 떡국 떡을 더 많이 준비한다. 설날이라는 특정 시기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가을철에는 고된 농사를 마감하고, 결실을 맺게 해준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추석이 있다. 농사일이 조금 한가해지는 추석에는 한해 농사를 짓고 햇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조상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차례를 지내던 절기의 의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추석이 되면 떡집에 송편이 많아지지만, 송편 역시 1년 내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떡 중 하나이다. 강강술래는 달 밝은 밤 부녀자들이 바깥바람을 쐬고 이웃과 함께 놀 수 있는 즐거운 놀이였으나, 이러한 놀이는 이미 가족들의 놀이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미 산업화, 개인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춰 절기의 의미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절기를 즐기고 지키는 문화는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연휴가 주어지는 설날과 추석만이 명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회가 명절의 유지와 풍속을 바꾸어놓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변화와 모임을 소규모화하거나, 줄이는 형태는 명절 문화를 바꾸리라는 예측이 타당하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의 의례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발제를 토대로 변화의 방향성을 좀 더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명절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사회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가정에서의 제사와 식구들 모임의 식사는 온라인 주문, 배송 등으로 바뀔 것이다. 이미 차례와 제사는 전문 상차림 배달로, 심지어는 휴가지에서의 차례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발제문에서 연휴에 하고 싶은 일이 가족 여행임을 볼 때, 모처럼 주어진 연휴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의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으로, 그리고 명절 당일보다는 명절 전후 분산된 시기에 모임으로 변화한다면, 명절연휴에는 가족여행이 증가할 것이며, 외식, 또는 배달 식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혼자 지내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있어, 명절의 음식 또한 필요한 양만큼만 사는 것이 실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배송시스템은 이미 전날 밤에 주문해서 새벽 배송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기에 미리 장을 많이 볼 필요도 없다. 적은 양만 살 때는 아예 조금씩 담아진 반조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제는 부모들이 먼저, 부모의 제사를 하나로 합친다거나 심지어 모든 제사를 없애는 경우를 볼 수 있으므로, 명절은 차례를 지내는 것보다 가족들이 서로 그 의미를 어떻게 전승하고 모임에 활용할 것이냐는 보다 실리적인 결정에 따라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 양성평등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이미 성별분담이 불가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명절에 친지나 친척이 아닌, 가까운 친구들의 모임으로 바뀔수도 있다. 명절에 어떻게 고향을 갈 것인가는, 언제 갈 것인가로, 그리고 명절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선택의 범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명절의 모임이 성별 분업화되고 누군가에게 부담이자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그런 형태의 명절 모임은 점차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명절 상차림에서도 양성평등 가능한 방향으로 일을 줄이거나, 이를 위해 사회화시키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백일, 회갑 등의 의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회갑은 장수의 의미가 아니며, 백일을 잘 버텨내는 것은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 시기의 유산이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 또한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는 살리고, 잘못된 관습은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토론 2]

코로나19 이후
명절의 변화와
가족사업의 변화

천현진 사무국장 |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추석 명절의 변화는 많은 가정에서 체감하였고, 실제 손서희 교수님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2/3가 이러한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개별 가정들이 적응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내 많은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과정에서 보이는 세대간 차이입니다. 40-50대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30대는 배우자와 함께 결정하거나 가족과 함께 논의·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가족소통은 전통적 가족리더의 의견을 따르는 방식보다 가족구성원 다수의 의사소통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의 의미에 대해 모든 세대에서 '가족 간 정을 나누는 기회'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20-30세대는 명절을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성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가족소통 방식과 가치변화에 따라 가족구성원 간 민주적 소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사업을 강화하고,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다양한 가족관계, 성평등 향상, '개인과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연구결과는 기존 가족관계 만족 정도와 가족평등 정도가 추석 명절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하거나, 가족 평등이 높은 가정은 명절이 갖는 본래 의미에 공감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반대의 경우 명절에 대해 스트레스 경험 또는 불평등한 가족문화에 대한 불편감이 높았습니다.

이는 비단 명절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명절은 평소 교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대규모 가족행사인 만큼 그 준비과정과 진행에서 가족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절을 분산하여 보내는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도 가족의 소소한 일상 관계를 긍정적으로 쌓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추석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 북한이탈자조모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키트 제공 및 비대면 실시간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송편 키트에서부터 북한 고향 음식 만들기를 각자의 가정에서 실시하였고, 완성된 음식을 비대면 화면에서 만나 먹는 과정은 마치 함께 교류하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가족 간 교류, 이웃 간 교류도 비대면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센터 사업은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프로그램, 멘토링 및 캠페인 등 모든 영역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콘텐츠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도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평소 가족 내 관계, 민주성, 성평등 의식 등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의 가족관계, 유대감 등은 사회 변화에서 개인과 가족이 적응하는 기초 자양분이 될 것이며, 이를 탄탄하도록 돕는 것이 센터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가족사업 운영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 3]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다문화가정의 가족문화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명절 문화 전망

이레샤 대표 |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안녕하십니까 톡투미 대표 이레사입니다. 이주여성 자조단체 톡투미는 세계 여러 국가의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결혼 이주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일자리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는 등 문화교류와 관련한 업종에 종사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톡투미에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끝에, 문화교류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일자리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명절은 온 국민의 대행사이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도 한국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16번의 명절을 만며느리로서 대가족과 함께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느라, 손님을 맞이하고 또 그 손님이 돌아가신 뒤의 정리를 하느라 몸이 조금 힘들기도 했고 친정에 갈 수 없다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조금 달라진 명절이었습니다. 매년 방문하던 시댁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위험하니 방문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명절 연휴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올해 저처럼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은 해외에 있는 가족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한 시간이 훨씬 오래되었으며, 여기에서 오는 우울감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톡투미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심리상담 측면에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여러 국가의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 각 지방 가정들과 공유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가족이 한자리에 다 모여야만 명절 문화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가족과 만나거나, 명절에도 멀리 사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친구와 가족을 만나는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변화가 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명절 문화보다는 가족 간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간다면 명절 스트레스는 줄고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만 가족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평소에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든다면 명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는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제 3차 온라인 가족포럼
포스트코로나 가족가치관 및 가족문화 변동 예측과 전망

발 행 일 | 2020년 12월
발 행 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 행 인 | 김혜영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4~6층
전 화 | (02) 3479-7600
팩 스 | (02) 3479-7786
홈 페이지 | www.kihf.or.kr
기획·편집 | 연구·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주)유앤아이컴
인쇄처 | 삼원그래픽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체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2020년 제 3차 온라인 가족포럼

[
포스트코로나
가족가치관 및 가족문화
변동 예측과 전망
]